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주간지]

Run-up (독서)

- 4주차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 [22~26]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①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2문단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3문단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4문단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 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문단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먼저 귀납의 정의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귀납은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귀납은 지식을 확장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해요. 기존의 정보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지식의 '확장'인가 봅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러한 귀납의 특성 덕분에 근대 과학이 발전했지만, 이러한 귀납에 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했대요. 그럼 어떤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동시에 문제가 등장했으니, 대안 또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시다.

#2문단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흄의 입장입니다. 흄은 과거를 근거로 해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가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거와 미래는 한결같지 않죠? 이 점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화제 기억하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선형적인게 뭔지는 다들 알죠? 경험적의 반대말이에요. 자연의 한결같은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흄은 이러한 귀납법이 정당하다는 것은 자연은 한결같다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해야 설명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자연이 한결같다는 지식은 다시 귀납법에 의해 정당화해야 하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선형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다시 이 귀납법이 정당하려면 자연은 한결같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죠? 그런데 이 자연이 한결같다는 것은 귀납법을 써야 정당화돼요. 이렇게 귀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같은 논리가 '순환'되는 이 상황, 즉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바로 귀납의 정당화 문제라고 하네요.

#3문단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이렇게 귀납이 순환 논리에 빠지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것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해요. 해결 방안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갑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우선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한결같을 수도 있고, 자연이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앞에서 등장한 흠의 입장을 떠올려봅시다. 흠은 자연의 일양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귀납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헨바흐는 어때요?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 전제를 거부합니다. 문제 - 대안! 기억나시죠?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읽어줍니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이라면 귀납법이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증거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인데, 자연이 일양적이라면 이 기존의 정보나 증거가 동일하게 미래에도 적용되겠죠? 그렇기에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미래 예측에 실패하겠죠? 하지만 귀납을 포함한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에,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이 일양적이면 귀납은 성공적인 방법이,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고 해도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귀납법을 쓰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다다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귀납을 쓰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라이헨바흐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문단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제 다른 문제로 '미결정성'이 제시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귀납의 한계를 지적하는지 봅시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갈게요.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미결정성의 문제라는 것은 관찰 증거만으로는 가설들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다', 미결정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시가 등장합니다.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겠죠? 아무 데나 점을 여러 개 찍고 곡선을 막 그어보세요. 하나의 곡선만 나오나요? 아니죠. 여러 개의 곡선이 나와요. 그렇기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결정성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계속 미결정성을 설명해주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점의 위치로는 다음의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한 곳을 확정해서 꼭 짚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증거로 많은 점들을 추가한다고 해도, 다음에 찍힐 점의 위치를 한 곳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낫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결정성의 원리에요. 관찰 증거로 지식을 확장하는 게 귀납이었는데, 이렇게 관찰 증거만으로는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5문단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의 문제를 확률로, 즉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나 봅니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을 확률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죠?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설이 저 가설보다 낫다는 것을 확률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귀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네요.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확률 논리가 대안이네요. 이렇게 개연성으로 귀납을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직관과도 잘 들어맞는다고 해요. 이런 방법은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방법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납은 몇 가지의 논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확률 논리를 사용하면서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 중 하나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귀납이 지닌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고 있지 연역과 비교하는 내용은 없네요.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귀납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죠?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귀납의 유형에 대한 말도 없어요.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귀납의 정당화 문제, 미결정성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말하고 있죠? 정답입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순환 논리 문제와 관찰 증거의 양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순환 논리 문제는 자연이 한결같음을 전제하는데 순환하는 논리적 문제인데 증거의 개수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확률 논리도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지만 과학의 방법으로 그 지위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이런 확률을 통해 귀납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학의 방법으로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죠?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이 말이 바로 순환 논리, 즉 귀납의 정당화 문제입니다.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 귀납에 대한 설명으로 완전히 맞아요.

3.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라이헨바흐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했을 뿐이지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라이헨바흐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구제책을 제시했어요.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 자연이 일양적인 경우 우리의 경험에 의해, 일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을 옹호하고 있어요.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미가 있다.

→ 라이헨바흐가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죠?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때,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때를 구분하고 두 경우 귀납이 옳은 방법임을 말하고만 있어요.

4.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 <보 기> —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보기는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관측하고 그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있네요. A와 B 둘 다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A는 미결정성의 원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B는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A는 본문에서의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의 입장과 유사하고, B는 그 반대의 입장이겠지요?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둘 다 이 예측이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아요. 둘 다 귀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확률적 근거를 통해서 A는 둘 중 하나가 더 확률적으로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가 추가되면 해마다 10℃씩 온도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A는 확률적 근거를 통해 귀납을 인정하는 입장이니깐 개연적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B는 귀납 자체는 인정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예측이 더 낫다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 ④번 선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B는 어떤 예측이 더 낫다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해도 어떤 예측을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 ①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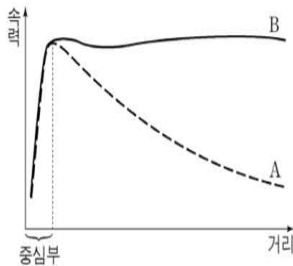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B [25~26]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 ②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 ③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 ④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긴다.
- 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2.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 ②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③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더 큼을 보여 준다.
- ④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2문단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문단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엮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암흑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식된 정의 놓치지 말고 체크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암흑//물질입니다. 내용은 쉽네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안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오랫동안 암흑 물질이라는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암흑 물질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화제 잡고 넘어갑시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하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하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해삼은 속력과 밝기에 따른 질량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이 차이가 매우 컸다고 해요. 그래서 츠비키는 이러한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질량은 은하들의 속력과 관련된 질량이겠죠? 속력으로부터 추정하 질량이 밝기로부터 추정하 질량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종된 질량’이 곧 ‘암흑 물질’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밝기로부터 추정하 질량이 작다는 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단 뜻이니까요.

#2문단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1970년에 루빈은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했습니다. 어떻게 이 ‘실종된 질량’을 찾았는지에 주목해 봅시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속력을 통해 질량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질량과 연결지을 수 있겠죠? 눈에 안 보이는 질량을 구해야 하니 ‘속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값을 이용합니다. 이때 중력 법칙을 이용하네요. 이에 따라

중심부 : ‘중심부와의 거리 ↑ - 속력 ↑’

라는 비례/증감 관계가 나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이번에는 중심부 밖에서의 속력이예요.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줄어들기에 별의 속력이 줄어듭니다. 방금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했는데, 중심부 밖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줄어듭니다. 중심부와 중심부 밖에서의 거리와 속력의 관계. 잘 체크해 둡시다!

중심부 밖 : ‘중심부와의 거리 ↑ - 속력 ↓’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중심부 밖에서의 별의 속력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네요. 위에선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줄어들기에 속력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중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아까 우리는 ‘실종된 질량’을 봤어요. ‘실종된 질량’은 속력과 관련된 질량이었죠? 이제 여기서 적용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떠올리셨으면 베스트입니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은하 중심쪽으로 별을 당기는 물질이 공전 궤도 안에 많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그 물질이 위에서 말했던 암흑 물질이 되겠네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암흑 물질’을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화제 기억하면서 넘어가야겠네요.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 후에 이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져도 속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3문단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암흑 물질이 발견된 후, 2006년에 이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성질일까요.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먼저 탄환 은하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네요.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이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에 각 은하단에 있는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서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이게 됩니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고온의 가스들은 부딪치는 반면에,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대요.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은하처럼 서로 엇갈려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그 중요한 성질이란 거겠죠?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대요. 간단합니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 암흑 물질은 보통의 물질과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②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 암흑 물질은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를 차지한다고 했죠.

③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④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긴다.

→ 은하 중심에서 별이 멀어져도 속도가 일정한 이유가 이 암흑 물질이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기 때문이었죠?

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 반대로 말했죠?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이 밝기로부터 추정된 질량보다 크게 만드는 겁니다.

2.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 관측한 결과를 그린 곡선이 곡선 B죠.

②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중력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랑 실제로 관측한 결과가 달랐었죠? 그게 '실종된 질량' 때문입니다.

③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더 큼을 보여 준다.

→ A 그래프는 중력 법칙에 따른 결과고, B 그래프는 암흑 물질의 영향으로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였죠. A보다 B가 중력이 더 큼을 보여줍니다.

④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중심부에 집중된 물질은 보통의 물질이지 암흑 물질이 아니에요.

⑤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 암흑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 [26~30]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

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1.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4.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문단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3문단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4문단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5문단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 고전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아요. 이게 곧 화제입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자연스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떠올리게 돼요. 법이 어떤 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법은 공정하지 않은 법이겠죠?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의 정의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 곧 자연법입니다. 숨겨진 정의 체크합니다. 법과 정의의 관계에서 자연법은 곧 정의입니다. 자연법 자체가 정의인 거예요. 화제 기억합니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이 자연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두는 법이에요. 속성입니다. 이름도 자연/법이잖아요? 자연/적인 성질에 초점을 두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자연/법!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본성)을 통해 자연법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법이 자연법이에요. 발견도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을 납득해볼까요? 인간이 어떻게 이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잖아요? 나쁜 짓을 보면 그게 나쁜 짓임을 알 수 있고 선한 사람을 보면 선한 사람임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자질을 통해 이 자연법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2문단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번엔 '서구 중세'에서이 자연법을 논합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갑시다. 신/학이니까 종교적 권위가 중요했겠죠? . 자연법이 인간에 깃들어 있는 법이라고 했죠? 신학에서는 신이 인간 이성에 새겨 넣은 것이라고 자연법을 이해했습니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앗 그런데 바로 근대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신이 인간 이성에 자연법을 새겨 넣었다는 의견에서 독립했어요. 오직 '이성(본성)'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 권위에서 탈피했습니다. 비교지점 잡고 넘어갑시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근대의 자연법 경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나 봅니다. 화제가 구체화됩니다. 일단은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갑시다.

그로티우스는 중세에 있던 종교적인 전통을 수용했지만, 자연법은 인간 '이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근대 자연법의 핵심은 이성입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중세 자연법의 경향을 수용했을까요?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로티우스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는 이 법이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합니다. 신의 의지라는 점에서 중세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요. 아주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란 것이죠. 자연법의 정의 기억나시죠?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정법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을 의미하죠?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을 의미해요.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 정도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정법과의 비교지점 잡고 넘어갑시다.

#3문단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이 종교 전쟁이 그로티우스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겠지요? 그로티우스의 사상은 계속 끌고 오면서 읽읍시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교 전쟁 때는 어떠한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를 본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기반으로 하면 모든 종교 상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연법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종교 전쟁에서 생기는 상황을 없애려고 한 것이예요.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종교가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를 조절해 결국 인류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그로티우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연법에 큰 기여를 했군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은 곧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자연법이네요.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합시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그의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을 토대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이론까지 구성했어요. 자연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인류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로티우스의 사상이 잘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이렇기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은 위에서 그로티우스가 자연법을 토대로 역설했던 내용들이겠지요?

#4문단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그로티우스 덕분에 이성의 법, 즉 자연법은 신의 권위에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로티우스는 신조차 이 자연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렇게 된 자연법은 인간의 권리가 핵심에 자리잡았대요. 인간의 어떤 권리가 자연법의 핵심에 자리를 잡았는지 이해해봅시다. 계속 근대 자연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예시입니다. 자연법은 신도 바꿀수 없는 본질적인 법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또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요. 여기서 인간의 권리로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이 제시되죠? 이 권리들의 '불가침'이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인권을 본질적인 자연법적 권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들은 근대 법체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특히 자유와 평등이 법과 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해요. 인간의 권리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죠? 이러한 권리들이 자연법의 핵심이 되고, 자연법이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기반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법이 발전하면서 결국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5문단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 가던 자연법은 19세기에 들어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신과 관련되고, 본질 등에 대해 다루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혹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정법은 법전에 확실히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기본이다 보니 추상적인 개념이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유를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이렇게 자연법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법률실증주의'입니다. 비교지점 잡고 넘어갑시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생각했던 대로네요. 인간이 만든 실정법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자연법은 당연히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겠죠?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정법은 입법자가 일정 절차를 통해 만든 법률이에요. 이런 법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절대적인 법률이 돼요. 국민은 이를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구요. 그럼 반대로 자연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법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자연법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전은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요. 전체주의 또한 실정법이었고, 이 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생겼어요. 실정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자연법은 실정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서로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1.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정답 : ③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법은 자연법이였죠.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미국의 독립 선언에는 자연법이 영향을 주었지 법률실증주의가 아니에요. 법률실증주의는 자연법을 비판하는 이론이죠.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자연법은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 기반을 제공했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관계를 맺도록 해주었다고 했죠? 정답입니다.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했어요.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에 저항권이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되었죠?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의 기초를 다진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법 이론을 구성했어요.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그로티우스의 저서인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전쟁 중에 지켜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죠?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자연법에 기반을 두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기반으로 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실정법이 기반이 아니고 자연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로티우스의 주장이죠? 실정법을 통합해 국제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종교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전통적인 신학 이론도 존중받지 못한 법 중 하나겠죠? 이를 통해 국제법을 구성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에요. 국가도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자연법은 도덕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질을 통해 자연법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윤리와 도덕과 관련이 깊습니다.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한다? 말도 안 되죠.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맞죠.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은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인데,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한다? 완전히 틀렸네요.

4.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 보 기 > —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문장과 일치시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먼저 ㉠을 봅시다. 지문에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은 맞네요. 다음으로 법률실증주의는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된 법률은 절대적인 법이 된다고 했죠? ㉡도 맞네요. 다음 ㉢를 봅시다. 법률실증주의는 자연법이 현실적으로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며 자연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죠? 맞습니다. ㉣ 또한 ㉡에서 말했던 내용으로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합법적 절차로 제정되었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를 볼게요. 법률실증주의에서 국민의 준수 의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국민이 준수를 해야 한다고만 했지 국민의 의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가 되겠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 가늠할
- ㉡ 가져올
- ㉢ 기다릴
- ㉣ 떠올릴
- ㉤ 헤아릴